



현진성님의 산방한담

천천히, 느리게 걸어라

오늘 아침에는 코스모스가 한 가득 피어있는 마당 풍경이 아름다워서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으로 바꾸었다. 꽃가게에서 국화 화분을 몇 개 사왔는데 벌써 꽃망울이 터질 듯 부풀어 있다. 산책길에서 마주한 구절초 꽃을 꺾어 와서 화병에 꽂았더니 방 안 풍경이 달라졌다. 명상음악 또한 피아노와 바이올린 선율로 선곡하고 하니 한결 마음이 차분해진다.

여러분들은 가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 방식의 일상을 적어보았다. 가을은 이렇게 성큼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마중할 채비를 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계절에 대한 예의는 아닐 것이다. 여름은 겉으로 배운다고, 가을은 천천히 마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며 그때그때의 마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계절의 변화와 마주하고 있으면 세상일에는 그 때가 있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그 때마디의 변화와 흐름을 통해 인생은 안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더욱 단단해진다. 이러하므로 바쁘다는 이유로 계절의 변화에 둔감하다면 자신의 변화로 이끌 수 없을뿐더러 삶의 리듬도 팽팽히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가을과 마주하게 되는 이 때쯤이면 새삼 행복의 문제를 고민해본다.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조건은 이렇다. '먹고 살고 입가에 조금 부족할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에겐 이겨도 두 사람에겐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렇게 따진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행복의 요점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다. 남보다 잘 나고 앞서가려고만 하는 삶은 늘 불안과 초조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뒤처지게 걷는 인생도 필요하다. 좀, 천천히 느리게 걸어라. 이것이 가을이 주는 법문이다.

청주 마야사 주지

봉은사 '판전' 경판 바깥나들이 나선다

28일까지 1223주년 개산대제 외국인 서울시민 위한 이벤트 계절별 사찰음식 체험도 눈길

서울시 유행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봉은사 판전(版殿)의 경판이 바깥나들이에 나선다. 1년에 단 한번 밖에 없는 보기 드문 일이다. 봉은사(주지 원명스님)는 오는 22일 오전11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불자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경내를 돌며 말리는 의식이다. 정대불사가 열리는 사찰은 흔치 않다. 경판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은사 판전

에는 <화엄경> <금강경> <유마경> 등 3479점의 경판이 전해온다. 경판은 1년 내내 건물 안에 있다 보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슬고 나무가 물리진다. 그래서 예부터 경판은 1년 중 봄 가을 벌이 좋을 때 나들이를 했다. 이번 정대불사는 봉은사 창건 1223주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개산대제와 불교문화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봉은사 개산대제는 지난 14일 개최한 어린이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행복나눔 바자회(20~22일)와 수륙대제(28일), 사찰음식 체험행사(20~22일, 28일), 가을 음악회(21일, 23~27일) 등 굵직한 문화행사가

이전다. 사찰음식 체험행사는 봉은사가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위해 마련했다. <금강명회승왕경>에 따르면, 중생들에게는 4가지 병이 있으니 봄에는 가래가 나고 여름에는 풍열, 가을에는 황열, 겨울이면 3가지 병이 한꺼번에 나니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봉은사는 자연을 담은 계절별 건강식 사찰음식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점심시간에는 도심 속 전통사찰 봉은사와 어우러진 정오음악회가 열려 가을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lgyo.com

제209회 중앙총회 정기회 11월1일부터 15일간 소집

예산안 원로의원 추천 건 등 다뤄

2018년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 승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제209회 중앙총회 정기회 가 오는 11월1일 오전10시 개최한다. 조계종 중앙총회(회장 원명스님)는 지난 1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총회 분과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인사심의특별위원장 제12차 회의를 열고 11월1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제209회 정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스님들은 정기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기중앙총회는 11월1일 개원일과 동시에 휴회에 들어가 중앙총무기관 및 직역·특별분담사찰 등에 대한 총정리검사를 진행하며, 11월8일 속개해 종한·종법 제·개정안과 원로회의 의원 추천, 초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 선출, 불기 2562(2018)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경우, 설정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원로위원을 사직해 현재 3명이 공석이다. 여기에 오는 12월10일까지 종산스님과 월파스님 임기가 만료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5명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원로회의는 교구별 재적속 1인을 원칙으로 구성한다'는 법에 따라 선운사, 봉선사, 월정사, 수덕사, 화엄사에서 추천이 가능한 상황이다. 의안 접수 마감은 오는 25일까지, 종책질의 접수 마감은 오는 27일까지이다. 홍다영 기자

신계사 복원 10주년 의미 남북불교 교류 전망 분석

민주본, 25일 전문가 초청 좌담회

남북관계가 별다른 진전 없이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계사 복원불사의 의미와 남북불교 교류의 전망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열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스님)는 오는 25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신계사 복원 10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본은 10월 남북불교 교류의 상징인 신계사 복원 10주년을 맞아 금강산 신계사를 찾아 조선 불교도연맹과 함께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 있으나,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기념법회를 대신해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마련하게 됐다.

'신계사 복원불사의 의미와 향후 남북불교 교류의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좌담회는 신계사 복원의 의미와 신계사를 통한 남북불교 교류의 성과를 조명하고, 남북관계 경색 속 향후 전개될 남북불교 교류의 전망과 과제들을 짚어 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좌담회는 본부장 법타스님의 기조발제와 함께 그동안 민주본과 인연을 맺어 온 남북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선거문화 제도개선'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안정과 화합으로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겠다는 주지 스님들의 진력에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선거문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선거가 중단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내년 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을 보고 받는 등 종단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로hing야족 사태는 종교탄압?



허정철 기자의 현장에서 hjc@bulgyo.com

최근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정부군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hing야족을 탄압하면서 무자비한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미얀마 정부를 이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수상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국내 종교계에서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 정부는 로hing야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적 비난여론이 갈수록 거세지지만 로hing야족 사태를 풀어갈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실 미얀마의 다수민족인 버마족과 소수 민족인 로hing야족의 유희사태는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정책에서 비롯된 비극이다. 일부에서는 불교가 이슬람을 공격하는 '종교갈등'으로 여기지만, 이는 단편적인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영국은 소수 민족 로hing야족을 미얀마로 이주시켜 식민지 지배도구로 사용했다. 심지어 로hing야족을 무장시켜 버마족을 집단 학살하기도 했다. 미얀마가 식민지에서 독립하게 되자 그동안 억압과 소외에 시달린 버마족의 분노는 로hing야족에게 향한 것이다. 어찌 보면 두 민족 모두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영국 언론은 자국이 저지른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재의 사태만을 언급하

며 연일 비판기사만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또 수치 여사가 지난 2015년 53년 만에 미얀마 군부 독재를 끝낸 가운데 국제사회가 로hing야족 탄압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번 사태를 주도하며 재집권을 꿈꾸는 군부의 이익과 맞아떨어지는 정치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현재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인권적인 행위는 어떤 이유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 출신 성분이 어떻든 그들의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태를 제대로 살펴보는 대중의 안목도 필요해 보인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는 여론몰이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로hing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불교계,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8년도 종단 장학금 선발 공고

본 종단은 다양한 분야의 승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선도하고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종단 장학금'을 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불기 2561(2017)년 9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승가교육진흥위원장 자 승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 광

■ 선발 개요

1) 선발대상

- ① 국내 장학금: 국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의 승려(총림대학 및 일반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 ② 해외 장학금: 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의 승려(일본, 중국, 인도·네팔, 미국, 유럽 등 전지역)
 - ③ 사찰승가대학원 장학금: 조계종법에 의해 설립·인가된 승가대학원의 전문·연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의 승려
- 2) 자격요건: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로 종한·종법 및 계 규정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 3) 선발인원 및 전공분야
- * 종단의 교육, 연구의 제분야 중 취약한 '대승불교', '계율(율장·청규)', '한국 불교사(근·현대)', '종교법' 분야를 우선 선발함

구분	국내·외 일반대학원 장학금	사찰승가대학원 장학금
가. 불교학 0명	· 초기불교 · 대승불교 · 선불교 · 계율(율장·청규)	사찰승가대학원 0명
나. 불교사 0명	· 한국불교사(근·현대)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일본불교사	· 율학 · 선학
다. 불교문화 0명	· 불교문화(문화·예술·건축·콘텐츠)	· 한문불전
라. 응용불교학 0명	· 불교윤리(생명·생태) · 종교법문 · 불교사회학·비교종교학·철학·철학일반·불교사상학·사회복지정책	· 초기불전 · 중관유식
마. 언어학 0명	· 불전언어(발리어·베어·티벳어·중국어) · 일반언어	· 능엄·회엄
바. 기타 전공(불교학 이외) 0명	· 철학·법학·의학 · 기타	

- * 장학금 신청자 선발 시 유의점(입학예정자)
 - 국내·외 장학금 선발 후, 1년의 유예 기간 안에 입학 허가서 혹은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하도록 함(1년 경과시 선발 취소)
 - 실제 진학대학이 신청당시 진학희망 대학과 다르더라도 동급 수준의 대학일 경우, 선발을 인정함
 - 전공분야가 변경될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함
- 4) 장학금 지급내용
 - ① 선발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석사 또는 박사) 수료 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 ② 장학금은 등록금 및 연구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함.
- 5) 가산점 부여 대상
 - ① 각급 승가고시 수석(최우수) 합격자로 표창 받은 자
 - ② 교육원에서 주최한 학인대회 수상자
 - ③ 교육원이 운영(또는 위탁)하는 전문·특수교육기관(국제불교영어학과, 한국불교융합학과) 졸업자
 - ④ 사찰승가대학 및 사찰승가대학원 상주교수

■ 제출서류

구분	국내·외 장학금	사찰승가대학원 장학금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수학기회서(자기소개서 포함) 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 ④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는 입학허가서 제출) ⑤ 학부와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신청시점까지의 성적증명서) ⑥ 서약서(소정양식) ⑦ 추천서(지도교수 1인의 추천서) ⑧ 재정보증서(은사스님) ⑨ 유언장(종단에 유언장을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연구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 ④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는 입학 허가서 제출) ⑤ 서약서(소정양식) ⑥ 교육기관장의 추천서 ⑦ 재정보증서(은사스님) ⑧ 유언장(종단에 유언장을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선발에 필요한 제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십시오.
* 서식 다운로드: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 공지사항(공지번호: 3091) → 2018년도 종단 장학금 선발 공고

■ 장학금 의무사항

- 1) 결과보고
 - ① 과정 수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및 학위수료증 사본 1부 제출
 - ② 학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취득학위증 사본 1부, 논문 2부 (외국어 논문은 한글 요약서 첨부) 제출
- 2) 소임 의무: 장학금은 해당 학위 취득 후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명에 의해 종단이 지정하는 곳(중앙총무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찰 등)에서 수혜기간 만큼의 소임을 수행하여야 함.
- 접수기간: 2017년 10월 16일(월) ~ 11월 10일(금) (4주간)
- 결과발표: 2017년 12월 중(조계종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교육원)
 - 우) 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E-mail: jin419@buddhism.or.kr 전화: 02)2011-1818 팩스: 02)732-4926